

모든 Focus는 안전!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제4공구 사람들

GS건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제4공구 현장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했던 지난 여름도 어느덧 서산으로 물러가고, 높다란 파란 하늘이 알려듯 가을이 왔다는 소식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느 때와는 사뭇 달랐던 지난 여름, 그래서 더욱 적응하기 어려웠던 여름이었기에 올 가을이 더욱 반갑다.

대전-당진 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도 변화무쌍한 지난 여름을 슬기롭게 잘 보내고 가을의 기쁨을 만끽하며 무사고, 무재해에 모든 Focus를 맞추고 있는 공구가 있다.

제4공구 현장.....

GS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곳은 대전-당진간 총 연장 153.94km 구간 중 9.05km를 담당하는 공구로 교량 16개소(3,597m), 터널 2개소(1,050km)를 포함해 토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건설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구 중 시공 여건이 어렵고 그만큼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4

공구이기에 가장 공사비가 많은 공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으로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에 불과하다. 최고의 공법, 최고의 안전으로 하루하루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곳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안전과 품질을 우선 고려한 공법선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현장 중 제4공구 현장에는 16개의 교량이 있다. 교각의 높이 또한 약 50~70m 높이로 재래식 공법으로 약 30개 정도를 시공해야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 중 교각 시공 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공중에서 조립, 해체할 때 추락 위험 등 각종 위험성이 상존함은 물론, 공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무리한 시공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한 예로 70m 1개의 교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약 18회 정도 거푸집을 조립·해체 해야 하고, 공구 또한 3개월이 소요된다.





이곳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공기가 확보되는 공법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24시간 연속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올라가는 슬립폼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교각을 세웠다. 또한 타현장, 대학생 등 각지에서 벤치마킹 및 견학 코스로 개방되고 있는 ILM공법은 슬라브를 지상에서 시공하여 유압을 이용하여 교각위로 밀어 올리는 공법이다. 이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공법임을 볼 때 제4공구 현장의 기본은 바로 안전이다.

안전모 다음은 안전벨트

제4공구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벨트식, 상체식 안전벨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모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몽·지도한 덕인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호구 중 하나인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에서 안전모 다음으로 안전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안전벨트 생활화 운동”이 이곳에서 한창이다.

전 직원과 협력사직원 등 대부분 현장사람들은 GS안전혁신학교에서 안전사고의 극한상황 체험교육을 받았다. 이 때 느낀 것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이며, 안전벨트는 단 1분도 공중에서 버티기 힘든 벨트식과 상체식은 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그 결과 제4공구 현장에서는 모두가 그네식 안전벨트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높은 교량공사에 따른 추락사고의 위험이 많은 현장이지만 오늘도 웃으면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데에는 앞서가는 안전 시공법도 있지만 철저한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도 한 몫하고 있다.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 창출

보다 안전하고 사고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민德基 현장소장은 “지시는 1%, 확인 99%”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동안 많은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안전활동은 보여주는 안전으로 변질 될 수 있기에 자율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감성관리를 독려하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근 비중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상생협력활동을 통한 안전”이다.



▲ 민 덕 기 현장소장


“
지시는 1%,
확인은 99%
강제적이고 지시일변도의
안전이 아니고, 슬선수범하는
안전입니다.”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사람 모두가 서로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안전 보호구 착용은 물론 시설물 보완 등,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 상생협력활동인데 GS건설 내에서도 이곳은 시범현장이다. 아침조회시 스킨십을 통한 정나누며 인사하기, 매주 1회 실시하는 상생협력회의, 협력업체를 순회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해하기, 매월 1회 축구게임을 통하여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마음 되기는 제4공구만의 직장문화는 무재해로 승화시키고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호칭을 사용하고 공손하게 대화하기 등은 호응도 가장 좋다. 현장에서의 안전은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가족이라는 틀에서 시작한다는 박우영 안전과장은 상생협력도 가족애에서 시작하면 안 풀리고 안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는 안전

『행, 불행의 차이는 순간적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방심도 대형사고로 이어져 고귀한 인명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기덕 현장소장의 말이다.

『안전관리자의 복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근로자들과 웃으면서 만나 웃으면서 헤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다.』박우영 안전과장의 말이다. 이 두사람의 말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랑이 안전으로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이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안전은 시작되었고 현장 사람들이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안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장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은 제4공구의 Focus인 이상 가을 햇살 속의 행복을 안고 피어나는 들국화처럼 무재해의 꽃이 이곳 현장에 가득할 것이다. 

〈최종덕 기자〉